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 **취재요청**

7월 11일 배포 | 지회장 정한영 010-4668-0179 | 금속노조 언론담당 이메일 : kmwupress@gmail.com,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

"결정책임자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

■ 제목: 금속인천 7.11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
■ 일시: 7월 11일(목) 오후 5시
■ 장소: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금속인천 현대ISC지회 사무장 장동환)
대회사 - 금속인천 현대ISC지회 지회장 정한영
투쟁사 - 금속중앙 부위원장 최순영
투쟁사 - 금속인천 지부장 안대원
연대사 - 민주노총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 장준희
연대사 - 정의당 동구의원 김종호
■ 문의: 정한영 지회장 010-4668-0179

○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엽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간접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결의대회에 참여합니다.

○ 회사 측이 조합원 교육을 막아서 교육 첫날은 결의대회로 전환합니다. 엄연한 노조 활동에 사측이 개입하고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대ISC지회 요구는 △동일처우 약속이행 △직무등급 정상화 △도급해지 고용불안해소 △교육장 사용허가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모회사-자회사-모노조-자노조 4자 안전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 모두 원청사용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하며 임금 80%와 동일처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단협을 준용하지 않으며, 동일 처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회사 전환 설명회에서 지급하기로 한 직무등급 중 상위 1, 2등급을 고의로 누락하여 지금까지 임금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내하청부터 해온 도급작업을 떼어내 사내 외주협력사에 넘기는 일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 공장에서 함께 밥먹고, 일하지만, 자회사 조합원은 교육장 사용은 불가하다고 사측은 표명했습니다. 원청 노동자가 아닌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엄연히 보장해야 할 노조 활동입니다. 해당교육장은 현대제철 정규직은 물론 신협도 사용하고, 외부 인사도 사용하지만 오로지 자회사 조합원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철로 깨짐을 확인하고, 탈선 위험함을 인식한 자회사 노동자가 생산작업 작업중지를 2번 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탈선사고로 징계도 받았습니다. 생산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현장의 위험을 잘 알기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어야 산재예방이 가능하지만, 모-자 안전협의체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를 보장하여 생명을 지키는 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현대ISC는 교육장 참여를 막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원청사업장의 불평등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에,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현대ISC지회 지회장 정한영 010-4668-0179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자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